

# 食糧代用으로 각광 밤

## 調 査 部

### 올해 생산량 4만톤

밤은 과실류중 澱粉함유량이 가장 많은 30%를 함유하고 칼로리는 쌀의 약 50%에 해당되며 각종 비타민등이 풍부한 영양식품이다.

그래서 고급식품으로서 뿐만 아니라 식량의 대용으로도 각광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밤나무는 材質이 견고해 家具, 農機, 造船, 木材 등으로 널리 사용되어 밤의 市場性과 더불어 農家의 좋은 소득원이 되고 있다.

政府는 지난 60년대 말부터 治山綠化는 有實樹로 한다는 방침아래 밤나무 식재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결과 밤생산량은 지난 74년 6천 6백 15t 이던 것이 새로 식재한 나무에서 수확되기 시작하면서는 급증하기 시작, 지난 78년에는 2만 9천t에 이르렀고 올해는 4만t을 넘어설 전망이다.

밤나무는 기후풍토에 적응성이 넓어 주춧주위, 밭둑, 하천부지, 야산 등에서 널리 재배되고 있다. 과거에는 山地에 자연발생적인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이제는 일반 과수와 같이 집약재배를 많이 하고 있다.

### 長期저장樹種開發이 과제

山地에 방치한 상태의 밤나무재배는 주로

育林의인 목적에 불과한 까닭에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수세가 약해지고 여러가지 병충해의 피해로 과실의 수확에는 그 질이나 양에서 큰 성과를 거둘수 없었다. 그러나 밤나무식재는 대부분 傾斜林地가 되므로 전문적인 과수 경영방식보다는 절충식재배방식을 택해 省力化를 해야만 한다. 밤나무는 다른 과수에 비해 거의 일손이 필요치 않다.

사과, 배와 같이 수정을 시켜준다거나 봉지를 씌우고 또 잦은 농약살포 등이 필요치 않아 농가 한가정에서 10ha정도는 관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밤나무식재의 적극 추진결과 최근에는 여러 문제점이 파생되고 있다. 우선 생산량 과잉에 따른 시장 가격의 하락이다. 소비자는 싼값으로 대량구입할 수 있었으나 kg당 1천원이 넘던 것이 5백원이하로 떨어져 생산농민들은 당초 기대했던 만큼의 수익을 보지 못한 것이다. 또 밤나무의 가장 무서운 적인 흑벌 虫害가 점차 늘고 있어 생산량이 떨어지고 있다. 흑벌은 재래종 밤나무에 극성을 부려 거의 멸종상태로 만들어 버려 이 충해에 강한 신품종을 개발, 식재하였으나 다시 피해를 입기 시작했다.

그리고 60년대말 밤나무식재를 권장할 때는 나무수명을 20년정도로 보고 상당한 경제성에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한창 成果期에 이르는 6~8년이 지나면 수세가 약화되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결국 일시적인 붐으로 조성된 밤나무 재배는 이제 새로운 기로에 서게 되었다.

그렇지만 밤의 영양가나 기호성으로 보아 앞으로 소비량은 계속 늘어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또한 밤의 과잉생산을 해결할 장기저장, 가공법이 개발된다면 유희지를 활용하고 노동력이 크게 필요없는 밤나무재배는 농가의 소득원이 될 것이 틀림없다.